

경악... 참혹... 폐허의 열도 비탄에 잠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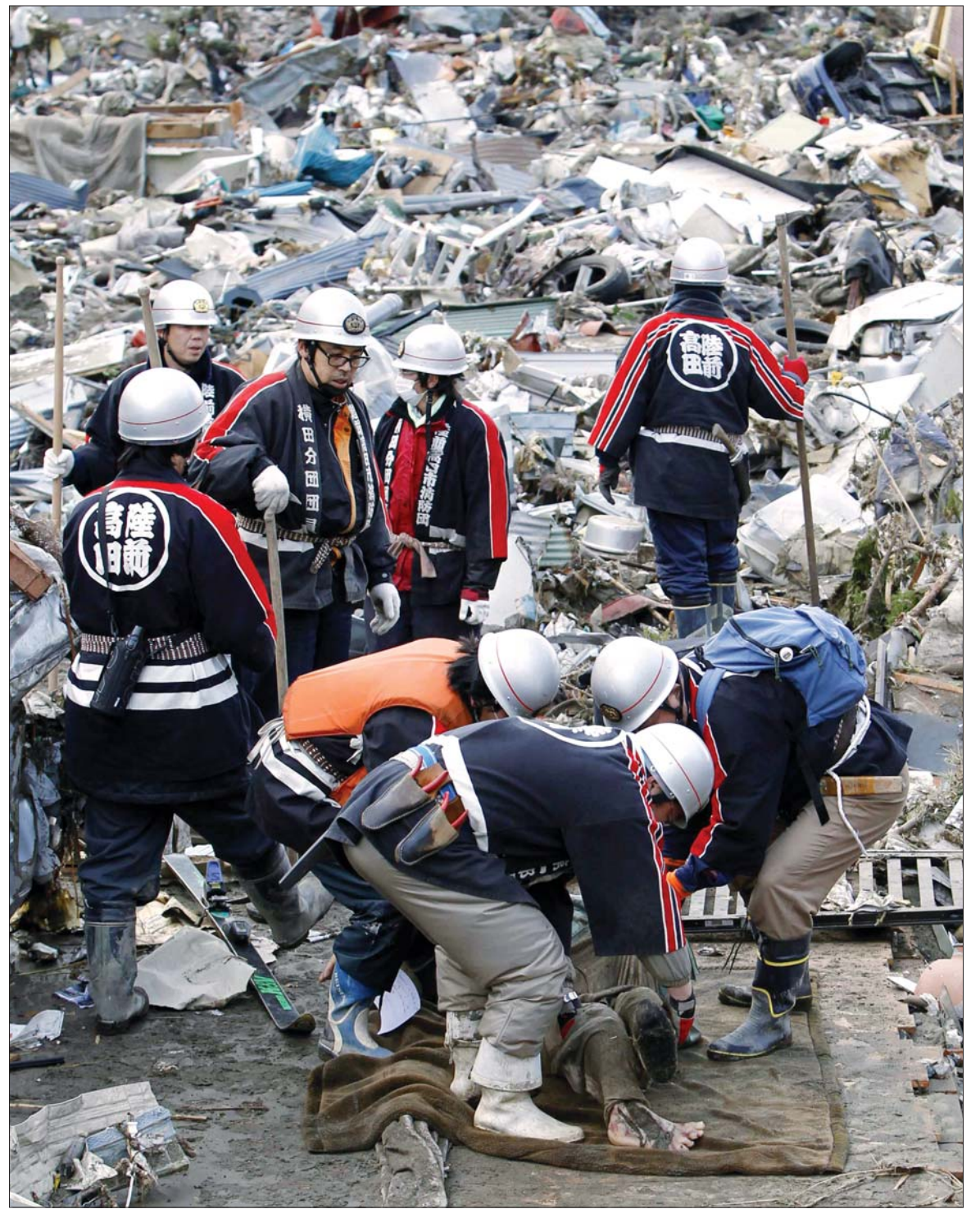
도심에 내팽개쳐진 대형 선박

12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개센누마(氣仙沼)시에 들어닥친 쓰나미에 의해 떠밀려온 대형 선박이 폐허가 된 도심 한가운데 내팽개쳐져 있다. /연합뉴스



어디로 가야 하나

13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도심 전체가 폐허로 변한 일본 센다이시 인근 타가 조에서 한 여성이 힘겨운 모습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13일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리쿠젠타카다시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한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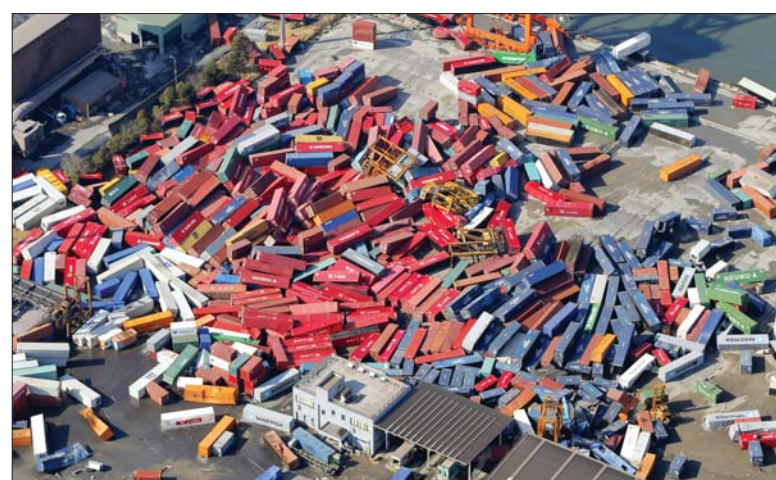
車 무덤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에 쓰나미로 휩쓸려온 자동차들이 찌그러진 채로 서로 뒤엉켜 있다.



생필품도 싹쓸이

13일 일본 후쿠시마 한 상점의 텅 빈 진열대에서 모녀가 생필품을 찾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부 지역에는 일부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널브러진 컨테이너

일본 센다이시 산업단지에서 컨테이너 화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정유공장 화재 진화

강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일본 지바현 이치하라시 코스모 석유 지바 정유공장에서 12일 소방선들이 화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